

허경미무용단 Redstep

춤을 그린다

— 젊은 춤꾼 열전(熱戰)



기획의 변(繅)

‘춤을 그리다’에는
춤추는 삶을 사무치게 ‘그리워하고 갈망하다(望)’의 뜻과
자신의 춤을 마치 그림처럼 ‘그려(畫) 보인다’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.

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20대와 30대를 춤으로 보내는,
그리하여 그들의 춤이 삶을 온통 뒤덮고 있는,
춤추는 청춘의
끝없는 갈망(望)과 그림(畫)은 명사(名詞)가 아니라 동사(動詞)다.

오늘의 이 춤판에서
갈망하고 있는 것을 내어 보이는
춤추는 청춘들의 열전(熱戰)을 기대해 본다.

허경미무용단 RedStep

날짜 : 2012년 8월 24일(금) 7시 30분, 25일(토) 5시

장소 :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

주최 : 허경미무용단 Redstep

주관 : 허경미무용단 Redstep,  민주공원

후원 : 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 부산문화재단,  부산광역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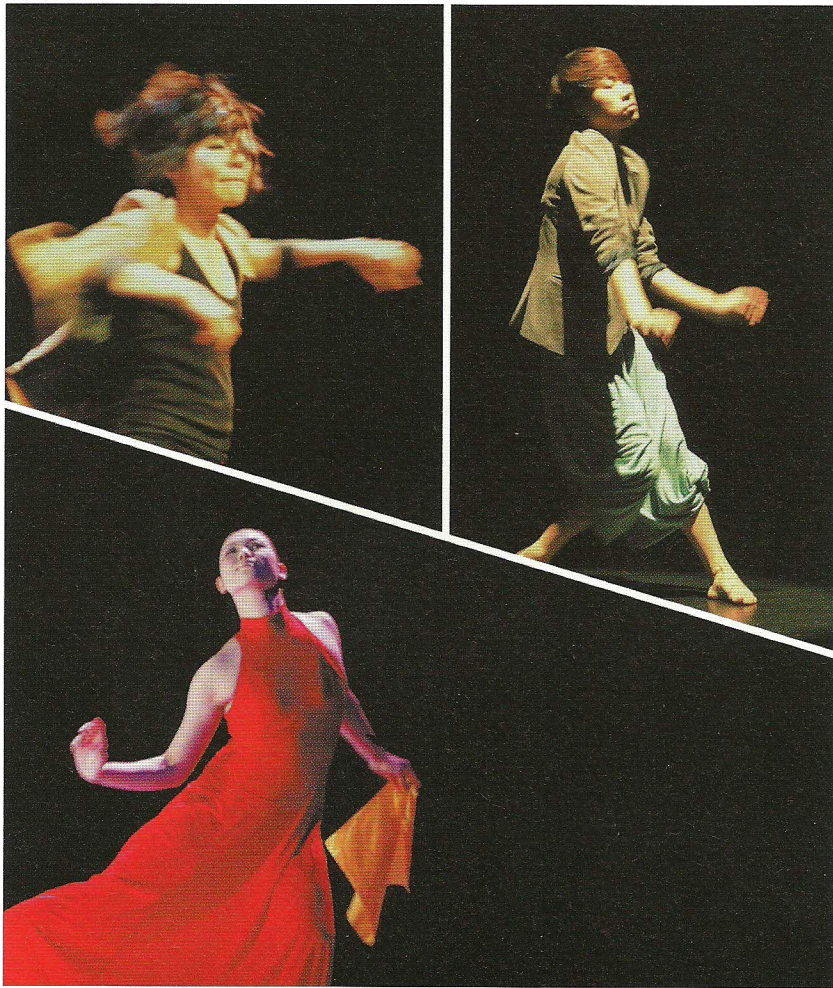
공연문의 : 010-2762-1827, 010-7515-9838

Wahaha Paradise



- 안무 : 박정윤
- 출연 : 김현정, 박유리, 박정윤

곳이 삶에 존재한다는 것은...
가슴이 바닥날 때 까지 쓰다쓰다 애가 닳아,
그 빈 가슴에 저마다의 낙원으로 채우련다.
한권의 아픔은 잠시 묻어두고,
낮선 인연과의 투영을 통해
이곳에 그들이 들어선다.
자연 속에 한 걸음 한 걸음
놀이하며 밤을 새워도 모자라리
낮췄이 절묘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
삶을 좀 더 단순한 열정과 따뜻한 가슴으로
두 눈을 마치 보름달과 같아
와하하 파라다이스
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2012
여름 ...



그리다



- 안무 : 강경희, 이연정(공동안무)
- 출연 : 강경희, 김동민, 이연정
- 음악 : 홍진경

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.
들리지 않는 마음을 그린다.
말하지 않는 그리움을 그린다.



페르소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- 총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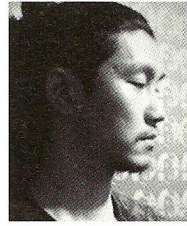
- 안무 : 신윤경
- 출연 : 송윤경, 신윤경

문득,
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.

*페르소나 - 심리적 · 인격적 가면을 뜻함



Root



- 안무 : 이용진
- 출연 : 이연주, 이용진

'두려움의 근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.
'내가 두려워함을 바라지 않는 탐심이
두려움을 만들고
그 어리석음으로
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불가해짐으로서
마음은 끊임없이 '나'라는 껍질에 갇혀
자신만의 섹터에서 맴돌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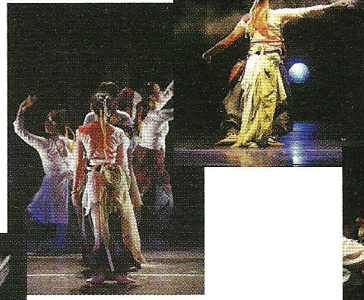
허경미무용단

RedStep

허경미무용단 REDSTEP은 2000년
도부터 부산지역을 근거로 꾸준한 작
품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.

2005년 「걸음-네 여자이야기」로 첫 무용단 단독 공연을 올렸
고, 2008년 「진화」와 2009년 「KISS」를 부산 금정문화회관
대극장과 부산 민주공원에서 올렸다. 2011년에는 정기공연으
로 창작춤 [외치다]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함
으로써 다수의 대극장용 창작춤 레파토리를 갖춘 무용단으로
성장하였다.

또한 2009년 11월에는 세계적인 무용축제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무
용축제에 초청받아 공연하였고, 2011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하고,
이어서 전국무용제에서는 단체 은상과 남녀 개인 연기상 수상하였다.
2012년에는 부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부산민
주공원에서 춤 교육, 창작공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

제작진

예술감독 허경미 | 기획 이상현 | 홍보 이윤희 | 조명 조대식 | 무대감독 이주영